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신개척지

우리의 전통과 문화 보존·계승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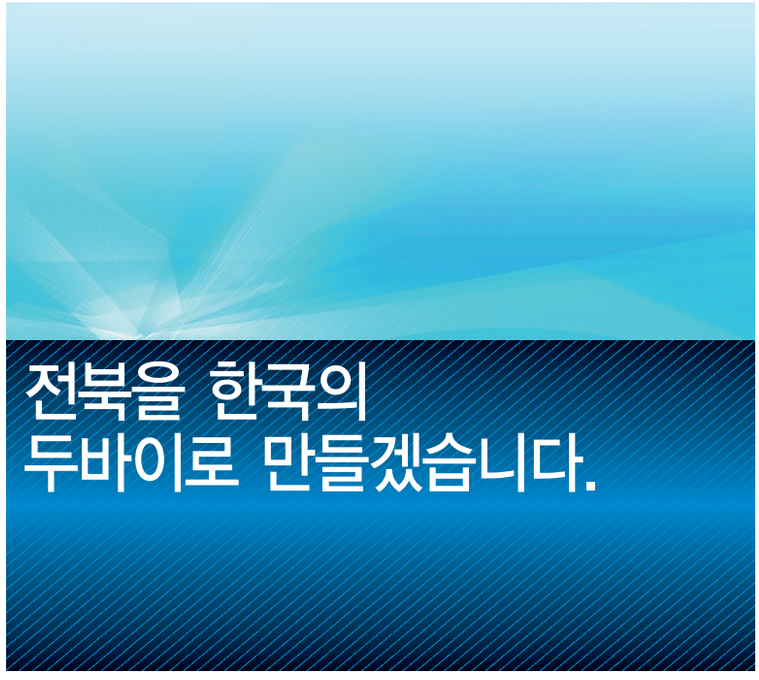
지구촌 화합과 복지에 앞장서는 모범지역

1 창조적 광역경제권 발전프로젝트 추진
2 새만금 신항만 건설
3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4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5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6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
7 다문화 가정의 성공을 위한 복지 실현
8 고령화 안전망 대책 마련
9 친환경 첨단농업 및 특작물 재배단지 육성
10 지속가능한 생태전원도시 건설

호남권 광역경제의 선두주자

전라북도

전북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습니다.



창조적 광역경제권 발전프로젝트 추진

새 정부는 시·도행정 구역을 지역의 인구 및 인프라, 산업집적도, 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합니다. (5대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2대 특별광역경제권 :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은 전국 최하위의 경제발전 지역으로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6대 발전전략을 세워 수도권 및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지덕권 등 6개 지역,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새로운 광역경제권 설정으로 균특회계가 광역권특별회계로 재편되어 기존에 확정된 국가지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책공약

'호남권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설립

- 전북에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지역 내에 호남권 광역경제권지역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의 성장잠재력 및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호남광역경제권인 전북·전남·광주지역본부에 기획조정권·재정권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를 신성장동력거점으로 육성하며, 호남광역권의 경쟁력 극대화와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북 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현재 개발할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비안도 중간해역에 위치하며 수심이 15~25m로 대형선박의 기항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입출항 항로가 짧아 우수한 지형 조건으로 동북아(한·중·일) 역내교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톈진항에 1만 5,000TEU급 선박의 입항을 위해 2010년 이후 초대형선박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항만은 수심이 얕고 1만TEU급 입항만 가능하므로 21세기 국제물류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새만금 자체발생 물동량(국토연 전망 389만 4,000톤)과 2011년 이후 군산항 증가 물동량(2414만 2,000톤)을 합한 2,803만 6,000톤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선석 규모의 신항만 개발이 시급합니다.

주변국인 중국 북동부의 경제성장과 항만의 급속한 발전은 환황해 경제블록의 규모와 역내 교역을 크게 증대시켜 서해안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축이 서해안 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역할이 요구되고 북중국뿐만 아니라 북미·유럽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은 꼭 개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대중국 거점 항만 육성

- 최대한 빠른 착공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연계한 대중국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에 대비해 서해중부권의 국제적 중추항만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가 물류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물류허브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새만금프로젝트와 연계해 다국적 우수기업을 유치해 한국물류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하여 신항만 건설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전북은 산업화 소외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심하고, 산업구조가 낙후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처가 필요하며 상용차, 농기계, 자동차부품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에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은 안성맞춤입니다.

탄소는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신소재로서 선진국은 물론 후발경쟁국에서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차세대 전략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부품 기계산업은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전북 발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의 부품소재산업과 차별화된 특화분야를 선정·육성하여 중국과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급단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RFT(방사선 융합기술)연구·벤처단지 조성

- 전북지역을 부품소재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육성하여 국내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자급화와 무역적자를 해소하겠습니다.
- 부품소재 연구 및 생산·공급단지,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연구·생산·시범단지, 유비쿼터스형 농기계 및 로봇·부품단지, 첨단 부품소재 클러스터, 첨단 부품소재 공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RFT(방사선 융합기술)연구·벤처단지 조성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구축

- 부품소재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구축을 통해 부품소재 관련 R&D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첨단 부품소재산업과 연계, 광활한 새만금지역의 여건을 활용하여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및 항공우주 부품공급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북의 순창 고추장, 전주 비빔밥, 고창 복분자 등 지역특산물은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고 이와 관련한 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역특산물의 산업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FTA에 대응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음식을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산업 역시 기술집약적·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인적·물적 자원 및 자본투자 등을 토대로 한류스타일의 고유 식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식품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해 R&D중심의 고부가가치 식품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인지도가 높고 풍부한 식품·관광·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전통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R&D중심의 식품클러스터 구축

- 국내외 유수기업체·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해 R&D중심의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북의 전통음식 연구·개발·전시·체험·교육·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전통식문화 체험관을 각 지역에 건립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

-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한지산업진흥원, 한스타일진흥원을 집적화하여 한류스타일의 주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전북 각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 및 브랜드화를 이룩하겠습니다.
- 각 지역특산물의 상호교류와 생산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푸드밸리를 조성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한 주변의 친환경적 요소는 명품 관광지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전북 군산 일대인 신시·무녀·선유·대장·장자도는 주변 환경이 빼어나 관광지로 개발하기 좋은 환경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4개 섬이 연결되어 있고, 망주봉과 선유도해수욕장은 경관이 빼어나 선유팔경으로 불리며, 선유낙조, 삼도귀범, 평사낙안, 명사십리, 망주폭포 등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뛰어납니다.

2010년 6,000만 명, 2020년 1억 명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관광명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33㎞),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하여 레저·휴양·생태가 어루어진 국제관광의 신흥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공약

복합휴양 관광지 조성

-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에 복합휴양 기능의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고군산군도 도서자원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지로 특화시키겠습니다.
- 고군산열도의 수려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수상레포츠, 해양휴양형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도서 간 교량을 건널 수 있게 하고 해양 및 해변을 따라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습니다.
- 도서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상택시·수상스키 등 수상노선을 개발하겠습니다.
- 변산반도 일대를 사계절형 종합해양휴양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지 개발 및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해양문화전시관, 생태박물관, 테마공원, 마리나시설, 아쿠아리움 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종합휴양지로 만들겠습니다.
-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설치하고 자연친화적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

전북은 찬란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 자존과 번영의 고장으로 국가 지속발전의 근원지입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떠오르듯 한옥은 전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문화자원이며, 이에 대한 기술전승 및 보전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체험과 교육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체험단지가 필요합니다. 고유한 전통문화의 콘텐츠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북에는 태권도, 스키 등 세계적인 올림픽 주종목 스포츠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관광·문화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자원을 살린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면 국가균형 발전전략과 부합된 특색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책공약

'전통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창조적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통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옥종합지원센터 건립

- 전통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당할 한옥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전주의 무형문화전당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고유 무형자산을 모아 세계무형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창조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 소리문화의 전당, 삼성문화회관, 도립국악원, 덕진공원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전주의 맥과 향기를 가장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창조공간으로 승화시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 전통문화·현대문화예술·미래문화의 전시공간을 형성하여 전주를 관광과 학습을 겸한 복합관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창조문화 빌딩, 영상미디어 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을 위한 복지 실현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성화돼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사회적 편견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모국의 가족, 친지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민간외교사절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다문화는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산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정책공약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감시 철저

- 건전한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감시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 다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찾아가는 아동교육(한글교육), 한글(언어) 및 컴퓨터 교육, 교육생자녀 돌보기 운영, 생활요리·예절교실 운영, 우리 문화 탐방 및 부부교육, 가족사랑 나누기, 아카데미 교실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지역안전망 시스템 구축

- 가족 구성원간 문화이해, 갈등해소를 위한 지역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다문화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1 : 1 후원 교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령화 안전망 대책 마련

전북은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경제활동 보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책공약

통합적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 급증하는 노인의 의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연계한 통합적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노인에게 꼭 필요한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 치매, 중풍 등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에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노인복지체계 종합적 구축

-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노인복지회관,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을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에 고령자기업을 설립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편의를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설하고 소외받는 노인, 학대받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와 종합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농업 및 특작물 재배단지 육성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농업구조정책으로의 변화와 투자가 시급합니다. 국내외 친환경 농업의 급격한 확산과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친환경작물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도 전북 지역에 맞게 FTA에 대비할 수 있는 농산물 재배가 필요합니다. 전북경제력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특종농가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방제로 안전하게 생산과 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첨단농업 및 특작물 재배 농가를 집중 육성해야 하며, 농촌생활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공약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 김제지평선 쌀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지평선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토양분석실,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 품목별 전문가 교육, 정보화 교육을 통해 핵심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북 각 지역에 맞는 부추, 대파, 논인삼, 논고추, 논콩 등 벼 대체 작목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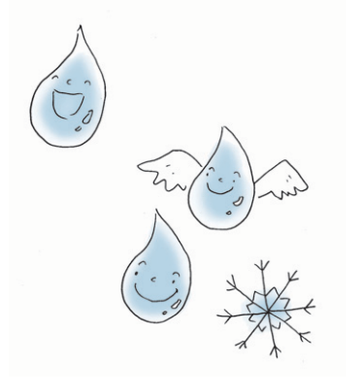
- 유휴지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고구마, 옥수수 등)
-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농촌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전원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농촌체험마을 조성, 첨단유기농 농수산자원 연구센터를 통해 농업특작물 관광·교육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전원도시 건설

온실가스 배출 증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 환경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북 또한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도심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북 하천생태계 복원 및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수질개선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으나 주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도입 후 생활폐기물이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폐비닐 및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요인입니다.



정책공약

종합가족휴양공원의 수목원 조성 확대

- 전주 주변의 하천과 호수 등의 수질개선사업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에코도시, 생태환경 기반을 구축해 종합가족휴양공원의 수목원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생명력있는 수변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리·감시체계 강화

- 유해한 폐기물은 특성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복원과 실개천 조성, 친수광장을 만들어 도심속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 재활용기술 관련 R&D시설 및 홍보관을 설치해 자원순환형 기술개발, 상설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겠습니다.

